<취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2대 원장 정해식입니다.

오늘 저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따듯하게 맞아 주신 우리 개발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급자와 차상위계청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이끌어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지난 2주 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다시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사업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008년 중앙자활센터부터 면면이 이어진 역사 속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일을 통한 탈빈곤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층의 정서·심리적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면서, 자활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원 가족뿐 아니라, 우리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참여하고, 계획하고, 지지하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의 열성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해나가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활사업은 항상 도전의 자세를 취해왔고, 또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딱뜨려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참여자의 자활역량은 낮아지고 있고,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표준화된 고용서비스도 점차 확대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다변화 속에서 수급자, 차상위자의 자립 자활을 위해 자활사업이 어떤 정책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다시, 제가 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간 자활사업, 자활개발원과 함께 참여자들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던 연구자였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자활

사업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활복지개발원 뿐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하는 자활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몸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힘으로 자활사업 전반을 이끌어가고, 자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자활사업도 새로운 도약을 꾀해야 할 때입니다. 당면한 과제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면서, 앞으로 자활복지개발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참여자의 역량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를 위한 공동체의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자활사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기업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 제공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자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자활기업이 지속 발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성장의 비전을 계획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이 자립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보다 확장된 우리 광역 인프라와 함께 펼쳐나가면서,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생애주기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의 변화를 주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자원들, 정보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활사업의 조용한 내조에 주력했다면, 이제 우리가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활복지개발원의 조직 운영도 이러한 전략 방향 속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의 근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활 사업의 필요성, 사업 방향의 타당성을 대외적으로 설득하고, 그 성과를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내부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원이 자활사업의 발전에 적극적으

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활복지개발원에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체계적인 조사 연구 체계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자체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활연수원의 교육 사업을 보다 확장시키겠습니다. 참여자의 자활역량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자활사업 종사자들에게도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변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경험이 다양한 방식의 교육 기회를 요구하였고, 그간 우리 자활연수원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제 지역과 광역자활센터의 교육 역량을 지원하면서, 보다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으로는 우리 자활복지개발원 직원 개인의 정확한 과업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이러한 과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밖으로는 자활에 참여하는 사업단, 자활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가겠습니다. 제가 발을 디딘 거대한 공동체의 힘을 안팎으로 키우고,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제 자활복지개발원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도 함께 많이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제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정 해 식